

(현안과제 보고서)

2020년 전국 시도지사 신년사 분석을 통한  
대전광역시 정책적 함의 도출

2020년 1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유병선 연구위원

- 목차 -

<연구 요약> .....	1
I. 연구 개요 .....	6
II. 분석 .....	8
1. 전국 시도지사 신년사 주요 키워드 .....	8
2. 시도지사별 키워드 우선순위 .....	11
3. 주요 키워드 관련 지방정부 정책 .....	17
4.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분석 .....	23
5.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 .....	26
III. 정책적 함의 .....	28
1. 대전광역시 정책적 함의 .....	28
2.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함의 .....	29
<부록 I> 17개 시도지사 2020년 신년사 .....	31
<부록 II>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	74



# 〈연구 요약〉

## I. 연구 개요

-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신년사 분석
- 키워드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 파악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을 통한 국가정책 기조 파악
- 대전광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적 합의 도출

## II. 시도지사 신년사 키워드 분석

광역자치단체명	정당명	성명	신년사 키워드(빈도순)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경제	혁신	창업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경제	부산대개조	스마트도시
대구광역시	자유한국당	권영진	일자리	성장	공동체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미래	행복	공동체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경제	공직자	혁신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혁신	비전	스마트시티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재도약	청년	혁신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주권	스마트시티	지방분권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제	평화	청년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평화	일자리	경제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경제	강호축	청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해양신산업	성장	경제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성장	대도약	경제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관광	드론	인구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이철우	청년	인구	문화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제	청년	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	무소속	원희룡	경제	4차산업혁명	일자리

## □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청년, 기업, 산업, 관광, 창업, 성장 포함)가 가장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키워드로 조사됨
  - 각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혁신(변화 포함)이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남
  - 혁신과 변화 역시 혁신경제 등과 같이 주로 경제정책과 연관되어 사용됨
  - 대전광역시의 경우 혁신경제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혁신과 변화가 강조됨
  
- 복지(공동체 포함)가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기타 평화, 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 포함)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대전은 혁신, 비전 > 스마트시티, 대덕특구 > 4차산업혁명특별시 > 균형도시 순임
  
- 주권, 인권, 성평등 등 대한민국의 가치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Ⅲ.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분석

- 2019년 성과를 제시하며 ‘그린시티(Green City)’ 기반 마련,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가시화, 사람이 모이는 ‘문화도시’ 기틀 조성, 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구축,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와 협력 강조
- 공직사회의 선행적인 변화 강조

#### IV.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

- 대통령 신년사 역시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분석됨
- 표현에 있어서는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 실현 강조
- ‘포용’
  - 일자리 확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농정틀 전환
  - 기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어린이 종합대책’ 보완
- ‘혁신’
  - 3대 신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 :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
  -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 V. 정책적 합의

##### 1. 대전광역시 정책적 합의

- 경제 관련 정책 추진 만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 홍보 강화 필요
-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대전광역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임을 보다 강조하여야 함

##### (참고)

-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

만,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됨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지역인재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점임.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됨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언급
-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저지 움직임이 보이므로,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짐에 따라 정무적 활동 강화가 요구됨

#### □ 내부적 결속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

- 17개 시도지사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의 협업 필요함.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역량의 결집 유도가 시급함

#### (참고)

-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2단계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1단계 사업 선정 지자체(대전, 인천, 수원, 부천, 창원 광주) 중. 2단계 공모사업에서는 최종적으로 2~3개 지자체만 선정하겠다고 국토부 예고한 상황임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거점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한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음
-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특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전-세종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함

## 2.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함의

-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강조하다 보니 다른 시도지사의 신년사에 비해 ‘경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대전광역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6개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지사와는 구별되는 측면으로 균형도시(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주권 확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전의 민정7기 시정이 ‘시민주권시대’를 표방하며 시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선7기의 시민참여는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문제해결과 효율성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신년사에 담고 있다고 평가됨
  - 문재인 대통령의 역시 신년사에 민주공화국을 강조하며 상생,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와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 시민주권 자치도시 구현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이지만 시장의 확고한 의지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 I. 연구 개요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원수의 신년사는 한 국가의 1년 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한 기관의 기관장 신년사 역시 그 기관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됨
- 2020년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 다른 시기보다 정책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대전광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1)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신년사 분석, (2)키워드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 파악, (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을 통한 국가정책 기초 파악 (4)대전광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등임

## ○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신년사 분석은 국가 대표의 새해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됨. 예를 들어,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 획득이 어려운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 신년사 분석을 주로 사용함
- 기관장의 신년사는 주로 기관장의 소속기관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 기관의 자체적 분석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를 이용함
- 본 연구는 1개 기관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신년사를 비교 분석하고, 대전광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분석과 차별됨

## ○ 연구방법

- 키워드 분석 (예시: 키워드 빈도 수 파악 후 이미지 작업을 한 사례)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시민	35	성장	28
일자리	22	복지	16
혁신	15	경제	14
.....			

- 시도지사 신년사 주요 키워드 분야별 정책 내용 분석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을 통한 국가정책 기초 파악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전광역시 정책개발을 위한 함의 도출

키워드로 본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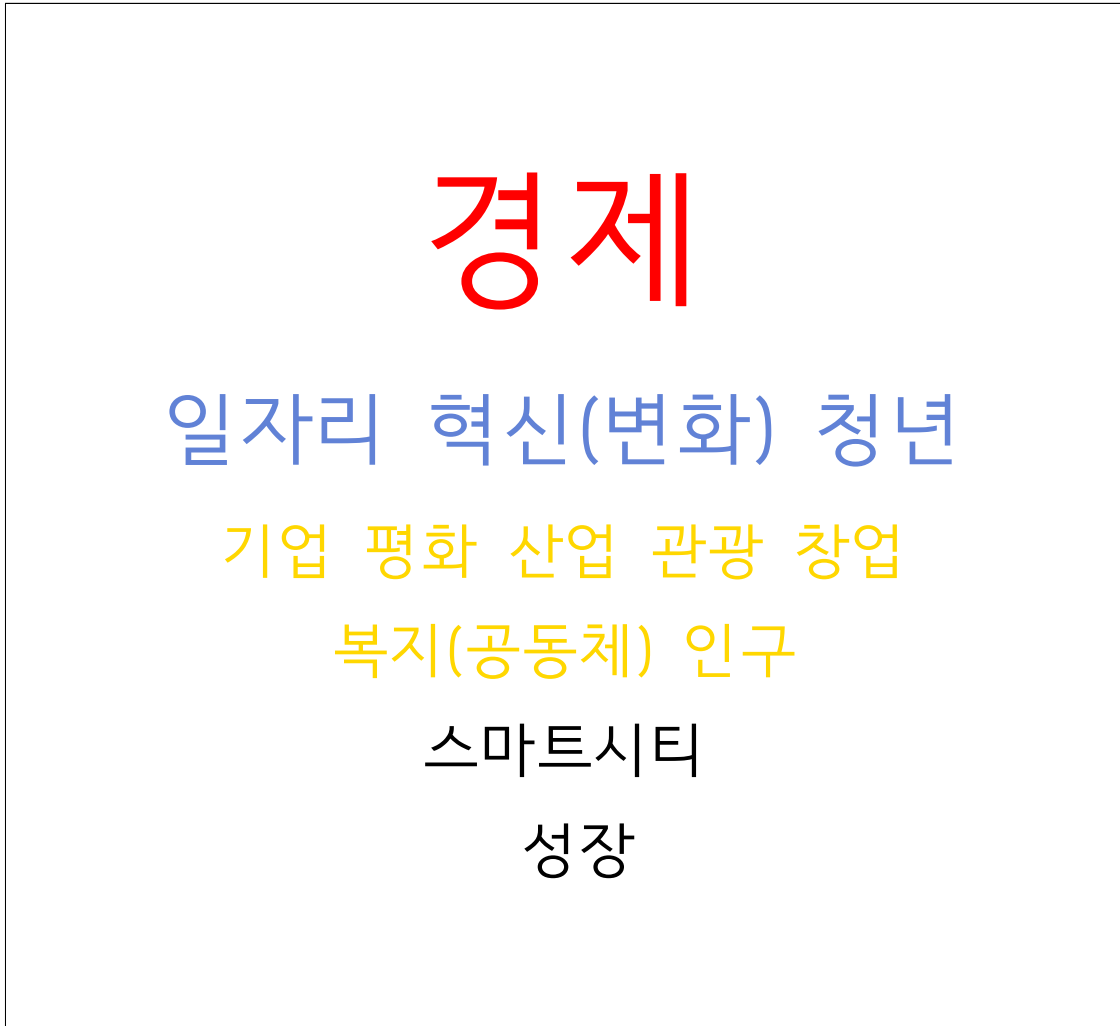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opengov.seoul.go.kr

-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2020년 대전광역시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

## II. 분석

### 1. 전국 시도지사 신년사 주요 키워드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68	일자리	28
혁신(변화)	24	청년	23
기업	14	평화	13
산업	12	관광	12
창업	10	문화	10
복지	10	공동체	10
인구	10	스마트시티	8
성장	8		



□ 키워드 선정 기준

- 시도지사들의 신년사 중 정책과 관련된 단어를 우선적으로 빈도수를 파악하였고, 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에 대한 빈도수를 파악함
- 신년사의 특성상 자주 사용되는 여러분, 시민, 도민 등의 단어는 빈도수 파악에서 제외시킴

□ 시도지사 현황과 신년사 키워드 우선 순위

광역자치단체명	정당명	성명	신년사 키워드(빈도순)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경제>혁신>창업>기업>불균형>불평등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경제>부산대개조=스마트도시=동남권관문=공항
대구광역시	자유한국당	권영진	일자리>성장=공동체>미래=산업=복지=신공항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미래>행복=공동체>복지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경제=공직자>혁신=발전>정의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혁신=비전>스마트시티=대덕특구=4차산업혁명특별시>균형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재도약>청년>혁신=산업=일자리=자동차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주권=스마트시티>지방분권=공동체=청소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제=평화=청년>복지>일자리=변화>공정=산업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평화>일자리=경제>기업=관광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경제=강호축>청년>투자유치=문화>농업>산업단지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행양신산업>성장>경제=일자리=비전=미래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성장=대도약>경제=산업>혁신=복지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관광>드론>인구>블루이코노미=일자리=친환경>첨단의료단지=기업
경상북도	자유한국당	이철우	청년=인구>문화>일자리=신공항건설=변화>혁신=미세먼지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제=청년=공동체=스마트>혁신=변화
제주특별자치도	무소속	원희룡	경제>4차산업혁명>일자리=관광=복지

□ 결과

- 경제(일자리, 청년, 기업, 산업, 관광, 창업, 성장 포함)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 조사됨
- 혁신(변화 포함)이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남
- 보기(공동체 포함)가 세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로 나타남

- 기타 평화, 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 포함)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대전은 혁신, 비전 > 스마트시티, 대덕특구 > 4차산업혁명특별시 > 균형 순임
- 주권, 인권, 성평등 등 대한민국의 가치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 시도지사별 키워드 우선순위

### 1) 서울특별시시장 신년사

**경제**    혁신    창업    기업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34	혁신	17
창업	10	기업	10
사람	3	불균형	2
불평등	2		

### 2) 부산광역시시장 신년사

**경제**    부산대개조    스마트도시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4	부산대개조	1
스마트도시	1	동남권 관문공항	1
지역화폐	1		

3) 대구광역시장 신년사

**일자리**      **성장**      **공동체**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일자리	4	성장	3
공동체	3	미래	2
산업	2	복지	2
신공항	2		

4) 인천광역시장 신년사

**미래**      **행복**      **공동체**      **복지**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미래	4	행복	3
공동체	3	복지	2

5) 광주광역시장 신년사

**경제**      **공직자**      **혁신**      **발전**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3	공직자	3
혁신	2	발전	2
정의	1		

6)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혁신 비전** 스마트시티 대덕특구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혁신	4	비전	4
스마트시티	3	대덕특구	3
4차산업혁명특별시	2	균형	2

7) 울산광역시장 신년사

**재도약** 청년 혁신 산업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재도약	5	청년	4
혁신	2	산업	2
일자리	2	자동차	2

8) 세종특별자치시장 신년사

**주권 스마트시티**  
지방분권 공동체 청소년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주권	4	스마트시티	4
지방분권	2	공동체	2
청소년	2		

9) 경기도지사 신년사

# 경제 평화 청년 복지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5	평화	5
청년	5	복지	4
일자리	3	변화	3
공정	2	산업	2

10) 강원도지사 신년사

# 평화 일자리 경제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평화	7	일자리	5
경제	5	기업	2
관광	2		

11) 충청북도지사 신년사

# 경제 강호축 청년 투자유치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9	강호축	9
청년	6	투자유치	5
문화	5	농업	4
산업단지	3		

12) 충청남도지사 신년사

**해양신산업**    **성장**    **경제**    **일자리**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해양신산업	5	성장	2
경제	1	일자리	1
비전	1	미래	1

13) 전라북도지사 신년사

**성장**    **대도약**    **경제**    **산업**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성장	3	대도약	3
경제	2	산업	2
혁신	1	복지	1

14) 전라남도지사 신년사

**관광**    **드론**    **인구**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관광	9	드론	6
인구	4	블루 이코노미	3
일자리	3	친환경	3
첨단의료단지	2	기업	2

15) 경상북도지사 신년사

**청년** 인구(지방소멸) **문화**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청년	6	인구(지방소멸)	6
문화	5	일자리	4
신공항건설	4	변화	4
혁신	3	미세먼지	3

16) 경상남도지사 신년사

**경제** **청년** **공동체** **스마트**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2	청년	2
공동체	2	스마트	2
혁신	1	변화	1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년사

**경제** 4차산업혁명 **일자리**

어휘 명	언급 수	어휘 명	언급 수
경제	5	4차산업혁명	2
일자리	1	관광	1
복지	1		



### 3. 주요 키워드 관련 지방정부 정책

#### 1) 경제(일자리, 청년, 기업, 산업, 관광, 창업, 성장 포함)

##### ○ 서울특별시

- 내용이 상당히 많은 신년사 내용을 경제를 주요 키워드로 설명함
- 경제, 민생의 어려움을 소득격차,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강조
- 한국경제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 청년실업율의 증가,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적
-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
- 서울시의 권한과 역할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할 것을 강조.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함

- ① 홍릉, 창동, 개포, 양재, 여동 지구 클러스터 본격화
- ②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
- ③ 혁신창업 지원 : 창업인프라 확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테스트베드’ 조성
- ④ 사람에 대한 투자 : 혁신학교 신설
- ⑤ 기업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외국기업 적극 유치
- ⑥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
- ⑦ 자영업 구제 :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조성
- ⑧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 : 국제적 수준의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 개최
- ⑨ 반성과 성찰 및 내부 혁신

##### ○ 부산광역시

- 짧은 신년사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제 표현을 4회 사용하면서 추진 예정인 정책을 제시함
-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형 맞춤형경제정책 실시

##### ○ 광주광역시

-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향후 일자리 창

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2020년에 나타날 것을 강조

-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 노사상생의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건설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 유치 등을 2020년에 달성할 것을 제시

#### ○ 경기도

-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을 강조
-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부터 혈액 공급
- 지역화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
-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으로 산업의 보호와 육성
-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신산업 육성

#### ○ 충청북도

- 충북이 실질경제성장을 전국 1위(6.3%, 2018년 기준)임을 자랑하면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을 강조
- ‘경자대본(經者大本)’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집중할 것을 강조
-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조성
- 오성제3국가산단, 충주 정밀 의료산단 조성이 정부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 등 충북이 매년 1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 공급
-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가입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등 골목상권에 활력
- 생산적 인력난 해결정책인 ‘생산적 일손봉사’ 14만 명까지 확대하고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
- 기존 6대 신성장산업(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정책 집중 육성 및 4차산업혁명기술과 ICT 접목으로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 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 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

-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이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
-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와 이차전지 시험평가 센터 구축
- 세계 과학자 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첨단동물 모델 평가동,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 ○ 전라북도

-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내실 있는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민생 안전

#### ○ 제주특별자치도

- 민생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1차산업 품목 다변화, 맛 좋은 상품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조성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개발

### 2) 혁신(변화)

#### ○ 서울특별시

-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시켰다는 표현을 사용함
- 추격형 경제에서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함
- 혁신창업, 혁신성장거점 구축, 혁신현장, 혁신의 봄, 혁신성장기업,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혁신가적 전략 등 주로 경제 관련 혁신을 강조함

#### ○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을 강조함
- 올해를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제시함
- 공공교통체계 혁신을 제시하고 2025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
- 대전을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거점도시화
-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의 주체에 걸맞는

- 위상과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함
-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의 바탕에는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3) 평화

#### ○ 경기도

-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필요
- 상황이 안 좋을수록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
- 개성 관광 재개 적극 추진
- 경기도는 2019년 11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됨.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준비
-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
-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비롯한 평화경제 기반 조성 주력

#### ○ 강원도

- ‘다시! 평화’ 를 슬로건으로 제시함
- 2020년 역시 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인 ‘평화’ 를 계승하고 확대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
- 국방개혁에 따른 위기를 DMZ 관광 등으로 극복

### 4) 복지(공동체)

#### ○ 인천광역시

-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마무리 및 시민 복지 증진 만전
- 도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등의 관망, 연결도로망, 숲길과 산책로 등 정비
-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대폭 확충하여 삶이 행복한 문화이음도시 구현

○ 경기도

- 도민복지권 보장 강조
-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지역화폐와 결합해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가성비 높고 경제효과까지 지닌 복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할 것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농민 기본소득으로 더 촘촘한 보편복지 실현

○ 대구광역시

-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대구 구현
- 고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전국 최초로 개소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차별화된 대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만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양육, 보육, 돌봄 등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노령인구 15.3%로 이미 고령사회에 깊이 들어온 대구공동체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인돌봄, 교육, 여가, 치매대책 등의 정책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지역공동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5) 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

○ 대구광역시

- 미래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5+1 신성장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세계 물산업의 중심에 서게 함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스마트웰니스 사업으로 메디시티 대구를 한 단계

#### 더 도약

- 로봇과 미래자동차 산업이 대구에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하도록 빈틈없이 지원
- 미래신성장산업 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휴스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으로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

#### ○ 대전광역시

- 2019년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 선언 상기
- 올해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가 그 꿈을 실현하도록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 정부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사업 등 대통령께 건의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사업들이 모두 작년 국비가 반영되어 올해 본격 추진 예정
- 바이오의약과 데이터-AI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고, 국방, 로봇, 드론 등 지역특성 전략산업 육성
-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설립을 통해 과학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가시화
- 도시기반과 시민활동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과학도시 위상 확립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교통, 환경, 안전, 시설관리 등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 활용
-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사업에 이어 올해 2단계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와 사물인터넷, CCTV 등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도 꾸준히 구축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ISO 인증을 받은 것을 강조
-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

## 4.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분석

### 1) 개요

- 2019년 성과를 제시하며 ‘그린시티(Green City)’ 기반 마련,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가시화, 사람이 모이는 ‘문화도시’ 기틀 조성, 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구축,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와 협력 강조
- 공직사회의 선행적인 변화 강조

### 2) 세부 내용

- 2019년 ‘새로운 도전의식’ 강조와 성과
  -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도시공원일몰제 처리, 대전시티즌 기업구단 전환 등 숙원사업 해결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등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 마련
- 혁신도시 지정,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만전 필요
- 올해를 ‘미래도시 원년’으로 만들고자 6대 과제 제시
  
- ① 지속가능한 ‘그린시티(Green City)’ 기반 마련
  - 공공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준비 시작, 2025년 구체적 계획 완료 예정
  -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공원화 추진
  - 자원 순환체계,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관련 정책 세계적 수준과 흐름에 맞춰나갈 것
  -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도심 녹지축 연계 등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진행
  
- ②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
  - 올해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가 ‘대전의 꿈’ 실현을 위해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 정부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사업 등 대통령께 건의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사업들이 작년 모두 국비가 마련되어 올해 본격 추진
- 바이오의약과 데이터-AI 중심의 혁신 거점 마련
- 국방, 로봇, 드론 등 지역특성 전략산업 육성
-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설립을 통해 과학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대전의 혁신성장 역량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 기록, 대전이 한국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거점이 될 것

### ③ 과학도시 위상에 걸맞는 ‘스마트시티’ 가시화

- 도시기반과 시민활동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과학도시 위상 확립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안전, 시설관리 등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 활용
-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펄린지 1단계사업에 이어 올해 2단계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 공공와이파이 보급확대와 사물인터넷, CCTV 등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꾸준히 구축

### ④ 사람이 모이는 ‘문화도시’ 기틀 조성

- 지난해 7030 관련 시책과 ‘대전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대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리는 데 노력
- 올해는 대상별로 차별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대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콘텐츠 개발 예정
-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 과학과 산업 등 모든 분야로 대전만의 매력과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대전을 즐기고, 대전에 공감하고, 대전에서 배우는 수준까지 확장
- e스포츠 상설경기장과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
- 내년까지 ‘대전방문의 해’ 3차년 사업 완료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 2022년 UCLG 세계총회를 ‘세계 속의 대전’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

### ⑤ 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 를 향해 노력

- 옛 충남도청사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개관 예정



- 도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과 역세권 개발에 총력
- 트램과 도시재생의 연계, 균형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과거와 다른 실질적인 도시균형발전 추진
- 원도심에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교육, 보건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별, 계층별 격차 최소화
- 지역소비가 지역 재투자로 연계되는 ‘순순환 경제’ 정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⑥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

- 민정7기 시정은 ‘시민주권시대’를 표방하며 시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선7기의 시민참여는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문제해결과 효율성을 담고 있음을 강조함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론화와 같은 숙의민주주의가 불필요한 시민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이고, 머지않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정착할 것으로 확신
- 10여 년 후 대전시의 상당수 지역단위 이슈들이 시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

○ 지방정부가 발전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주체에 걸맞는 위상과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

○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협력 필요

○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 실·국장 책임제를 강화하여 소관 조직과 인력, 사무를 운영하도록 할 것
- 그동안 해온 일들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여 과거와 차별된 정책방향을 찾아줄 것을 기대

## 5.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분석

### 1) 개요

- 대통령 신년사 역시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분석됨
- 표현에 있어서는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 실현 강조
- ‘포용’
  - 일자리 확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농정들 전환
  - 기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어린이 종합대책’ 보완
- ‘혁신’
  - 3대 신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
  -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 :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
  -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 ‘공정’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어서 내용 생략

### 2) 경제정책 내용

-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해소
-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 도입
- ‘청년추가공용장려금’,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
-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 으로 육성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산업혁명 기반 구축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100대 중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
-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
-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확대
-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
- '투자 촉진 세계 3중 세트' 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 강화
-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 활성화
-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 구현

### 3) 민주공화국

-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강조
-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지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이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될 수 있음을 강조

### Ⅲ. 정책적 합의

#### 1. 대전광역시 정책적 합의

##### □ 경제 관련 정책 추진 만전과 ‘시민 경제 활성화’ 홍보 강화 필요

-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대전광역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중요한 사안임을 보다 강조하여야 함

##### (참고)

- 지역인재 특별채용제도는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에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 이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4개에 불과하지만,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3개 기관이나 됨
-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지역인재 광역화를 시행한다는 점임. 개정 혁신도시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올해 27%, 2021년에 27%, 2022년에 30%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행돼 대전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됨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언급
-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저지 움직임을 보이므로, 여야를 막론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짐에 따라 정무적 활동 강화가 요구됨

##### □ 내부적 결속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협력 노력

- 17개 시도지사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의 협업

필요함.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역량의 결집 유도가 시급함

(참고)

- 현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2단계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1단계 사업 선정 지자체(대전, 인천, 수원, 부천, 창원 광주) 중, 2단계 공모사업에서는 최종적으로 2~3개 지자체만 선정하겠다고 국토부 예고한 상황임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해 4차산업혁명특별시 거점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한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음
-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추진 예정인 ‘자율주행특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전-세종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함

## 2.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합의

-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강조하다 보니 다른 시도지사의 신년사에 비해 ‘경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대전광역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6개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지사와는 구별되는 측면으로 균형도시(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주권 확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 대부분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전의 민정7기 시정이 ‘시민주권시대’를 표방하며 시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선7기의 시민참여는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문제해결과 효율성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신년사에

담고 있다고 평가됨

- 문재인 대통령의 역시 신년사에 민주공화국을 강조하며 상생,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을 통한 국민주권 강화와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함
- 시민주권 자치도시 구현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이지만 시장의 확고한 의지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 부록 I : 17개 시도지사 2020년 신년사

## 1. 서울특별시장 신년사

1.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첫 출근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여정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 있던 ‘사람’ 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지난 5월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천만시민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가족들 또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힘겨운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와, 잘못해 온 부분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시작입니다.

돌이켜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 경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며,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고, 추격형 경제로부터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의 전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시스템이 점차 정상화되고 활력을 찾아갈 거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서울도 적극 협력하고 상생하겠습니다.

3.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의 수단은 제한되어 있고 수많은 규제와 권한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라고 출발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효과가 적을 거라고 도전자체를 망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규제혁파를 요청하고, 재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는 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지 않

습니다.

4. 서울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본격적인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경제를 바꾸는 박원순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6대 거점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곡의 융복합 R&D 클러스터,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창동의 음악산업, 개포의 디지털 클러스터, 양재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R&CD 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를 능가할 영동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쇠퇴와 노후화를 겪어온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입니다. 세상의 기운을 모아내는 다시세운프로젝트, 동대문의 패션상가, 종로 2.3가의 보석거리, 동대문의 한방거리, 중구의 인쇄골목, 용산의 전자상가, 장안평 중고차타운 등이 바로 이러한 혁신현장입니다.

나아가, 스마트 앵커를 통해 도심지역 내 흩어져 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 들을 한 곳에 모아 산업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시대의 뒤처짐이 아닌, 연륜의 증거가 되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위로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하겠습니다. 쇠퇴해가는 도심 제조업의 겨울이 이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혁신의 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5.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꿀 저의 세 번째 생각은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10대기업 중 절반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이미 미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축입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 나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텐센트’ 와 같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테크시티’ 를 표방하고, 정부산하기관인 테크시티 투자청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을 혁신창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대안을 혁신창업에서 찾겠습니다.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을 창업이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① 무엇보다도 창업인프라를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40여 곳에 불과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100여 곳으로 늘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둔 서울창업허브, 서울혁신파크 등은 이미 세계적인 창업공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네마다 창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CAMP와 구글의 서울 글로벌 창업캠프, WEWORK 와 같은 민간 창업공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이스라엘의 창업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2천억 규모의 서울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성장기업 2천여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해외펀드도 제가 직접 나서서 유치하겠습니다.

② 서울을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테스트베드’ 로 만들어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신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육성하는 스타트업이 글로벌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화, 홍보,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 세계 57개 도시에 서울의 경험을 수출하고 있는 도시경험해외수출단(SUSA)의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도시가 되는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만든 거대한 혁신의 생태계입니다. 베를린은 지금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창업을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꿈과 전망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의 비자면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6.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경제를 살릴 박원순의 네 번째 생각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도 혁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을 가장 잘 실현할 전략은 바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혁신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프랑스 에콜 42’와 같은 혁신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천 명 이상의 글로벌 리더급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으로, 창업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 간 상설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스펙으로 평가받는 인재가 아닌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의 또 다른 말은 도전정신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서울을 꿈꾸는 전 세계 모든 인재들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7. 경제를 살리는 다섯 번째 생각은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축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고용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보다 더 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1300여 개에 이르는 서울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대폭 늘리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시는 이미 95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외자유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임기 중에 이 기록을 다시 경신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로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보다 더 높이 성장하고, 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8.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경제를 살리는 여섯 번째 생각은 바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두를 위한 경제’, 이른바 ‘위코노믹스 WECONOMICS’를 주창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발전, 중소기업의 성장, 노동존중사회,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바로 겨울의 춥고 거친 날

씨를 헤치고 나아갈 튼튼한 사륜구동의 네바퀴입니다. 그 비전과 방향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99:1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는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구조하는 것은 가장 급박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영업자 구제, 이것이 바로 저의 일곱 번째 생각입니다.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입니다.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키우겠습니다. 공들여 열심히 키운 내 가게가 텅없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작한 제로페이 또한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10.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로는 전망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경제를 위한 박원순의 여덟 번째 생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조입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는 폐자재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고가임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사이클산업, 수제화 등 핸드메이드 경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역시 세계 곳곳에서 주류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공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 함께 창조적 활동을 벌이는 플랫폼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되고, 분산되고 복잡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분야에 진입하기 힘든 높은 벽을 허무는 융복합과 연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협력, IT, BT, NT의 융합, 기술과 인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창조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서울에서 열겠습니다. 새로운 흐름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남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가 아닌 맨 앞에 앞장서서 세계를 이끄는 혁신형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11. 혁신경제로 나아갈 아홉째 생각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서울시 내부부터 시작하는 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자금과 재정을 중소기업, 전통시장, 창업에 쏟아부어 왔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음에도 왜 우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왜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생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공 R&D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정도는 세계 26위에 불과합니다. 관료적 접근과 지나친 규제, 현장 소통의 경시, 새로운 현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수요자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대로 추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기업출신 경제전문가를 임명하겠습니다. 경제전문 부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목표를 엄밀히 평가하여 오류와 실수를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1을 투자해 100의 경제효과를 내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앞으로 서울시를 그냥 서울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경제특별시라고 불러주십시오.

12.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과거 중국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 는 이른바 흑묘백묘 이론을 통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고, 오늘날 중국이 글로벌경제대국 2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실용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실용을 중시하는 철학, 혁신가적 전략과, 기업가적 도전의식을 늘 마음에 품고 행동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좌파라 공격할 때 서울시장인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시민과파라고 대응했습니다.

저는 과거 기업가정신으로 아름다운가게를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아시아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21세기 실학운동’ 을 통해 희망제작소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시무식이 끝나는 대로 양재 R&D혁신허브 입주 기업을 만나러 갑니다. 여과 없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의 초심 그대로 다시 현장으로, 시민의 삶터로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혁신시장실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저의 열 번째 생각입니다.

13.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 또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관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함께 단결했고 도전했으며,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긍정과 낙관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의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과 낙관이 바로 우리경제를 희망으로 바꾸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민들을 긍정과 낙관, 도전과 용기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려내는 특효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힘을 내어 이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앞으로 제 임기 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

하며,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전환의 길목에서 언제나 담은 ‘시민’이었습니다. 저 박원순 에겐 천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 2. 부산광역시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의미 있게 살았는지, 매순간 최선을 다했는지, 나도 모르게 주변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저의 경우 이런 생각의 끝은 언제나 아쉬움입니다.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가 그렇습니다. 10개월 연속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지역내총생산(GRDP) 2위를 재탈환하는 등 성장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기엔 부족합니다.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로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산형 맞춤형 경제 정책을 펴겠습니다.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부산대개조 비전을 세우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스마트도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진정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세우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워라벨 1위 도시를 달성하고,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했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끝 'End' 는 그리고 'And' 와 함께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의 끝은 또 다른 어떤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2019년 만들어낸 성과에 노력을 더해서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새해를 우리 부산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부산은 분명히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흰 쥐의 해입니다. 지혜로운 시정으로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3. 대구광역시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50주년, 2.28 민주운동 60주년,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선포하는 첫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대구시청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250만 대구시민의 부름을 받아 시장으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며 미래로 가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1 미래신산업 육성과 혁신인재 양성, 따뜻한 대구공동체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만들기, 다시 찾고 싶은 즐거운 대구 조성, 시민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참여의 도시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2일에는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인 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시민이 시장이 되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흔들림 없이 대구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대구혁신의 역사적 도전에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 가족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는 신산업, 신청사와 신공항이 함께 하는 ‘새로운 대구’ 건설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과 인재가 ‘기회의 도시 대구’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미래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5+1 신성장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세계 물산업의 중심에 서게 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스마트웰니스 사업으로 메디시티 대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로봇과 미래자동차 산업이 대구에서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성장하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휴스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으로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은 물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너무 힘듭니다. 시민의 삶터인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 활성화,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채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전 대책 추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대구를 열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소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차별화된 대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양육, 보육, 돌봄 등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인구 15.3%로 이미 고령사회에 깊이 들어온 대구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인돌봄, 교육, 여가, 치매대책 등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지역공동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구공동체에서 단 한 사람의 소외받은 이웃이 없도록 촘촘하고 탄탄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공간구조를 혁신하여 동서남북이 균형발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신청사 입지 결정에 이어 다가오는 1월 21일에는 통합신공항 입지가 결정됩니다. 대구 공간구조의 대변화의 시작입니다. 동대구 역세권과 공항 후적지 그리고 수성알파시티를 연결하는 동부축, 서대구 역세권과 두류신청사 그리고 달성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서부축, 앞산과 시청후적지 그리고 도청 후적지를 연결하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미래형 공간구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대구 대도약과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를 본 궤도에 안착시켜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었던 서대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3공단, 서대구공단, 성서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예전의 영광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또, 올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20곳의 도시공원을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기능을 살리고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4차 순환도로, 상화로 입체화 등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대구산업선 철도,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대구가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클린로드, 친환경 차량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공공장소 미세먼지 피난소 구축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올해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2.28 민주운동 60주년 기념행사와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조성 등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계승하고 세계화하겠습니다. 1907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의 위대한 대구 정신이 올해 2020년 2월 21일 대구시민의 날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 및 시민 주도 시민주간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항일, 호국, 민주주의 그 위대한 시민정신을 대구도약과 시민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과 현장맞춤형 생애주기별 예술인 활동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 등 일상 속 가까이서 접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K-POP 글로벌 콘서트 개최,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구경북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걸음도 성큼 내딛겠습니다. 컬러풀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 등 100만명 이상이 함께 즐기는 축제는 물론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국제오페라축제 등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치로 발전하는 ‘참여의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민선6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철학으로 시정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원탁회의와 현장소통시장실,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구형 숙의민주주의의 확산과 소통형 거버넌스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이루어내고 신기술과 연계한 행정혁신을 촉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을 달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한뿌리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달빛동맹도 더욱 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실질적인 분권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 가족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녹록치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와 1만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올 한 해를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민생을 보듬고 미래를 여는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신청사·신공향이 함께 하는 새로운 대구 건설의 백년대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대구경북 상생과 통합의 발걸음도 성큼 내딛도록 할 것입니다. 대구혁신, 새로운 대구 건설의 역사적 도전에 250만 시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2020년 대구경북의 새시대 새역사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4. 인천광역시장 신년사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한층 변화하고 준비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은 해소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 주춧돌을 다졌으며, 세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은 놓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인천시는 ‘완전한 해결,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이라는 시정 모티브를 바탕으로, 시민의 숙원 과제들을 완료하고 시민 공동체와 도시기분트는 잘 이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완전한 해결, 든든한 시정’에 힘쓰겠습니다.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안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루원시티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청라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사업도 잘 매듭짓겠습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을 마무리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공공갈등 현안은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소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굳건한 연결, 튼튼한 기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신설과 연결 사업과 내무 순환교통망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항재생과 해양친수공간 연결 등 바닷길 연결과 역사문화길 연결 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고 시민의 마음을 잇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등의 관망·연결도로망·숲길과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늘려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서관 등을 대폭 확충해, 삶이 행복한 문화이음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희망찬 숨결, 탄탄한 미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스마트산단·공항경제권·관광산업활성화·부품소재산업과 뿌리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협업체계를 잘 닦아하겠습니다. 자원재생시스템 대전환과 맑은 물·공기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선진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자아를 완성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인천시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정으로, ‘대한민국 속 인천’이 아니라, ‘인천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켜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5. 광주광역시장 신년사

제가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등산의 힘찬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주요 성과만 100개가 넘었고, 의미 있는 상만 93개나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시장을 믿고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본격적인 성과는 금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 △노사상생의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공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세계화 △광주전남의 상생협력 등 하나하나가 광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중차대한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출발점에 서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일부 구절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넘어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즐거울 끈게 세웠나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 지나간 자리에 큰 꽃 피고 작은 바람 지나간 자리에 작은 꽃 핀다고 했습니다.

천상여지 필선고지 (天將與之 必先苦之)

하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는 항상 먼저 고통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면 분명히 광주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피어」처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만이 광주를 바꿀 것입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삶이 우리 공직자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시정 ‘혁신’ 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양광모 시인의 「멈추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모습은 청년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는 광주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혁신, 소통, 청렴’을 나침반 삼아 모처럼 맞이한 광주 발전과 도약의 호기를 살려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시무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날들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향 광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후배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6. 대전광역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2020년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며, 시민 모두에게 보람과 행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무식에서, 2019년을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열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도시공원일몰제 처리 및 대전시디즌 기업구단 전환 등 그동안 담보상태였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를 비롯해,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등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0번이 넘게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면서, 소속정당과 지역구에 상관없이 정치권이 하나 되어 대전발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움직이고, 한마음으로 더 협력한 만큼 도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속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많은 노력으로 확정된 국비반영 사업들이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 시기에 맞게 추진할 일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2020년의 비전을 그렸듯이 더 멀리 1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대전이 가야할 도시의 비전을 중심으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그린시티(Green City)」의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운영되는 2030년, 대전은 철도 중심의 교통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철도 3개 노선에 시내버스와 타슈가 연계되고, 청주공항, 세종시 등 주변지역까지 도시철도가 연결되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0%에 이르는 꿈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공공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오는 2025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공원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자원 순환체계,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관련 정책들을 세계적 수준과 흐름에 맞춰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도심 녹지축 연계 등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이끄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구현합니다.

작년 1월, 대통령과 함께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을 선언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대덕특구가 그 꿈을 실현하도록 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특히, 정부 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사업 등 대통령께 건의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사업들이 모두 지난해 국비가 반영되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바이오의약과 데이터-AI 중심의 혁신성장 거점을 만들고, 국방, 로봇, 드론 등 지역특성 전략산업도 육성하는 한편,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설립을 통해 과학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대전의 혁신성장 역량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면, 대덕특구의 국가혁신성장에서도 우리시의 입지와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대전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스마트시티」도 가시화하겠습니다.

도시기반과 시민활동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인 과학도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교통, 환경, 안전, 시설관리 등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사업에 이어 올해 2단계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공공와이파이 보급 확대와 사물인터넷, CCTV 등 스마트시티 기반시설도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사람이 모이는 「문화도시」의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지난해는 7030 관련 시책과 ‘대전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대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대상별로 차별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대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 과학과 산업 등 모든 분야로 대전만의 매력과 정체성을 확장함으로써 대전을 즐기는 것에 덧붙여, 대전에 공감하고 나아가 대전에서 배우는 수준까지 넓히겠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과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내년까지 ‘대전방문의 해’ 3년차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전의 문화관광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2022년 UCLG 세계총회를 ‘세계 속의 대전’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골고루 잘사는 「균형도시」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서격차 해소는 원도심을 신도심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이어 시 유관기관 등이 원도심으로 이전하고, 옛 충남도청사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을 개관할 예정이며, 향후 도경부지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완료되면, 중앙로 일원은 창업과 공공기관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과 역세권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트램과 도시재생의 연계, 균형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 과거와 다른 실질적인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도심에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교육, 보건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역소비가 지역 재투자로 연계되는 ‘선순환 경제’ 정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주권의 「자치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은 ‘시민주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의 시민참여는 기존의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문제해결과 효율성이라는 실질적 합리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공론화와 같은 속의민주주의가 불필요한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이고, 머지않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정착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을공동체는 공간적, 정서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 단위로 공동육아, 공유경제, 친환경급식 등 생활 주변에서부터 신선한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이념적 측면도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실용적 측면도 큼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엔 두려움과 설렘도 있고,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10여 년 후에는 우리시의 상당수 지역단위 이슈들은 시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전이 가야할 미래를 분명히 그려야 하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전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이 따라가는 과거의 방

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발전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주체에 걸맞은 위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주변지역과 어떻게 연계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경제와 문화의 권역을 넓히고,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와 행정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과 과제들을 민간, 자치구 등과 함께 나누고,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국장 책 임제를 강화하여 소관 조직과 인력, 사무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해온 일들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여 과거와 차별된 정책방향을 찾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도 새로운 대전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갈 대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7. 울산광역시장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밥 짓는 어머니의 정성어린 손등에도, 출근길 아버지의 씩씩한 구두에도,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도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희망을 신고 오는 첫 연락선처럼 새해 새아침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만사형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울산호가 장기불황이라는 안개에서 벗어나 울산 재도약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올해 시정 최우선 목표는 ‘울산 재도약’입니다.

우리시 정부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향해도를 만들고 불황탈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일본수출규제 위기 등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전국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7Bridge’, 즉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것은 물론 울산형 일자리로드맵을 완성하였고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놓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행차, 친환경차 등으로 고도화하고, 석유화학산업은 신소재와 바이오·정밀화학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울산의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다시 석권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와 원전해체산업의 4대 에너지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 기반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백리대숲 품은 태화강국가정원과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최첨단 시립미술관 건립은 울산의 도시 브랜드가치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영남알프스, 태화강, 동해바다와 산업현장을 아우르며 우리시를 명품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울산의 염원이었던 국립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및 농소·외동 간 국도건설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접근성 강화 및 강동권 관광개발을 앞당기며 울산의 새로운 경제 동맥이 될 것입니다.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공장 유치로 시작으로 가동된 울산형일자리 로드맵은 앞으로 2조 1천여억원의 투자유치, 4,600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전국의 인재들을 다시 울산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국립산재병원 등의 SOC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40% 이상 참여하게 되고, 5천 7백억 원대 사업비를 수주하게 됨으로써 울산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시민 체감 경기를 더 높일 것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등 출산휴가자 인사·복리후생 우대 정책 실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무상급식, 무상교복, 친환경 급식 등은 아이

낱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교육복지 선도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청년몰 지원, 취업역량강화 지원, 청년근로자 주거와 복지지원 등은 울산의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갖추게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책 신설, 노인 돌봄사업 전면 개편,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은 시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들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할지는 모르나 멋진 바다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호는 푸른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일함의 밧줄을 풀고 새로운 엔진으로 망망대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울산 재도약이라는 본 항로에 반드시 올라설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훌륭하게 생업을 꾸려 오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늘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8. 세종특별자치시장 신년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기해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모두 보기만 해도 넉넉함과 유쾌함을 주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2017년에 이어 평창올림픽에서 불어온 평화의 봄바람이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였던 지난해는 모두에게 감격스럽고 가슴 벅찼던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열망과 흐름은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9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혁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갈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자유와 평등, 민족대통합의 정신이 담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해 외친 이날의 독립선언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우리 민족에게는 긴 암흑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에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올해는 국민주권을 더욱 발전시켜 세종시민의 주권이 꽃피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3.1운동의 정신이 되살아나는 기해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종시의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예산 반영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중심에 우리 시가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는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 시로 이전해 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관련 용역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밝혔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순항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명칭, 위치, 이전 규모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장관들과 소통하고 민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시민 여러분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단단하게 마련한 제도를 기반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체감도를 높여겠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159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시민 여러분께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찾아 해결방향을 결정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세종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 생활 구석구석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품속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2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늘리겠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해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시티는 우리에게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표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미래차 연구센터를 설립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와 혁신을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걸맞게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고, 소방·안전·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터와 삶터가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세종아트센터를 건립하고 향토유물박물관과 금강스포츠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시민 여러분에게 늘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 말,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총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함께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고자 노력한 끝에 만들어 낸 결과여서 더욱 귀하고 값진 성취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과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설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춘초지원 사업을 비롯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도 차근차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출범 목적에 맞게 충청권 이웃 도시들과의 경쟁보다는 상생의 자세로, 함께 번영하는 길로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불망초심.

16년 전 실행정수도를 추진하던 처음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간절했던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백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이 열릴 것입니다. 2019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9. 경기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입니다.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유통기한 위·변조 등 도민의 삶을 어지럽히는 민생 침해 범죄들도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엄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체납관리단은 더 확대해 역량부약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 여러분의 품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이동노동자와 현장노동자의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평화시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면해서 개성 관광 재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닫혔던 개성의 문을 열어 켜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겠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내겠습니다. 개성 관광이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의 마중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기울

이겠습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비롯한 평화경제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 됩니다. 공공기관 3곳의 경기북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 SOC 시설 확충을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도민복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성장이 멈춘 오늘날, 복지 투자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지역화폐와 결합해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고 경제 효과까지 지닌 복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농민 기본소득으로 더 촘촘한 보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의 주도적인 정책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지급하게 될 청년 면접수당은 이 시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연적인 제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는 곧 순환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것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죽은 경제입니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에부터 혈액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원한 시장상권진흥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5,37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지역화폐가 경기도 구석구석 모세혈관을 순환하며 생명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댄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으로 산업의 보호와 육성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생활환경을 꼼꼼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영세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들을 동시다발로 추진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역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됩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병원 수술실뿐만 아니라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의료사고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은 경기도정의 나침반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따라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0. 강원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 “다시! 평화”를 말씀드립니다. 2020년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인 ‘평화’를 계승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던 순간의 감동을 우리 도민들께서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북미가 평화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던 소중한 발걸음들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대한민국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불과 2년을 지나지 않아 한반도는 다시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거의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됐고 더 나아가 정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영광스런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작은 진전을 하나씩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쌓여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다시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은 우리 강원도민들입니다.

올해 도정의 핵심 목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새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국제 무역 분쟁 등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를 지탱하고 확대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고용, 수출, 투자, 혁신 성장, 관광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의 확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도의 고용률은 64%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업자 수도 늘고 있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새해에는 청년 고용을 늘리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취업과 관련된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취업을 원하는 도민이 있으면 한 분 한 분 모두 기업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자리 재단 설립으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전기차와 액체수소, 수열에너지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강원도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 신산업이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강원도에 제조업의 기반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관광의 질적 양적 도약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항공·관광 융합형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강원도로 실어 나르게 됩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와 북방 항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범 예정인 강원관광재단도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관광 진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도민들과 함께 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평화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위기를 DMZ 관광 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기업에서 문화, 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가족형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큰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21년 국제청소년동계스포츠대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하

여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과 노령화 등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020년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다시! 평화’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11. 충청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164만 도민 모두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이루어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는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호축(江湖軸)의 큰 꿈을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한해, 충북은 대규모 SOC사업 예타 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충북인구 164만 시대 개막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의 도운(道運)이 크게 상승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 2018 기준), 10조 9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9.1%인데 비해 충북은 11.6%가 증가한 6조 854억원을 확보하며, 미래해양과학관·소방복합 치유센터 건립 확정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경자년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북도정은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 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 大本) 즉, 경자대본(經者 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충북도정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충북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원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실효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인 산업 단지 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송 제3 국가산단, 충주 정밀 의료산단 조성이 정부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충북에 매년 1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공업용수 부족분은 국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 보급하여 입주기업의 정주 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여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로, 생산적 인력난 해결의 답으로 호평받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새해에는 14만명 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양대축의 하나로 등장한 강호축은 전국 8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충북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지난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충북도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강호축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국가 균형발전의 아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경박단소형 첨단사업을 집적화하며,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 나가도록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특히 오송원주연결선은 기술적·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 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기술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큼니다. 산업 과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의 핵심 인프라인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충북이 최적지입니다.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이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와 이차전지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실 세계 과학자 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첨단동물 모델 평가동,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는 충북 도정의 기본철학입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9.8%인 2조 29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0.977명)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산모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

(18만원 →48만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 도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道 장애인회관 착공 등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천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자립을 돕고 노인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고, 군 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여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은 도지(道誌)를 28년 만에 재발간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유산인 택견 그리고 문화유산인 범주사를 상호 연계해 충북의 얼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청주, 제천, 보은, 진천, 단양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국비를 확보한 국립 충주박물관과 범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 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미래여성 플라자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열한 분의 흉상을 설치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들의 오랜 꿈인 빙상경기장을 준공하고, 공공 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 케이 본격 출범을 계기로 동남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활주로 및 여객 터미널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시설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눈물겨운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미래해양과학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 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한껏 높여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목표입니다. 지역간·계층간·농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道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과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 구간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지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 구간과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영동 구간을 본격 추진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관통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고, 대전~옥천간 광역철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동탄, 감곡, 보은간 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청주~오송역 중전철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청주공항 주변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TBN 충북교통방송국은 2022년 정식 개국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임시 개국하고, 제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 어번케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기본 소득보장제는 농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남부3군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괴산·단양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과 중부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삼한사미(3일은 축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니다. 도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677대)와 전기차(1,062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6,824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감축협약을 지속 확대하고 이동측정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붉은수돗물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합니다.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대형재난 및 실종자 수색시 공중탐색이 가능한 재난현장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상시 거점소독소,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300개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오는 2월 개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또다른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를 완성하기 위해 4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과 노력없이 이뤄지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4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북의 최대현안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 한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2. 충청남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도정은 착실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와 발전전략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한 2020년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상황은 위태로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정치와 외교는 보다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민선7기가 중반부를 맞이합니다. 민선7기의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의 싹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충남도정에 박차를 가할 시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도민 행복과 미래성장전략 마련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충남의 장기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겠습니다. 세계 해양신산업은 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해양신산업의 중심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10만개, 기업 1000개 육성, 생산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복원,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이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의 연속성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껏 추진해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13. 전라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요의 상징 쥐의 해를 맞아 전북도정은 대도약의 기운이 힘차게 응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도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바꾸고, 혁신과 성장의 씨앗을 도정에 뿌리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대도약의 동력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철도 등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시대를 열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탄소소재산업, 홀로그램 산업, 농생명식품산업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야 등 역사와 문화 제조명으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로 확정지어 챔피언에 이어 전북을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당당한 전북 뭉치기로 2020년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7조 60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북의 성장률은 2018년 2.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수 등 3대 고용지표도 개선의 흐름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51개 기업이 전북에 이전, 투자하고 연구소기업이 100호를 돌파하면서 새해에는 1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도민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도정은 도민의 희망과 기대를 체감 가능한 변화와 일상의 행복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굳건히 추진해 온 정책 혁신과 진화를 완성해 경제와 사회, 문화와 자존의식의 대도약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의 육성, 고도화로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내실 있는 추진과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챔피언 등 4대 대규모 대회로 전북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으로 새만금을 국토 동서축의 대동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인의 삶이 존중, 배려받고 안전과 복지, 균형발전이 있는 따스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도민 여러분의 삶은 전북대도약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전북은 대도약 실현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한파는 여전히 매섭고 성장동력의 새 싹은 아직 여리고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우리 도정은 올 한 해 전북대도약을 위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굳센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 14. 전라남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 주시고, 뜨거운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미래를 향한 도정에 희망찬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남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기회와 도전,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1년 6개월 간 착실히 다져놓은 기반위에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역 발전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서, 도민의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블루 엔진을 기반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이 ‘전남 행복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성공 스토리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남의 정도 새천년 비전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인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그리고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성과가 22개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관련 예산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260억 원),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사업(460억 원) 등 117개 사업에 1조 2,629억 원을 확보해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블루 이코노미가 국가 경제 발전전략과 연계해 환경해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도모델로 서남해안 일원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면서 12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을 이끌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국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과학 연구의 핵심시설로서 에너지 신소재, 신약 개발 등 세계적인 수준의 신산업 육성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지정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분야인 e-모빌리티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되어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로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드론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3단계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산업용 중대형 드론과 드론택시·플라잉카 실증 분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200억 원)과 산업용 드론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127억 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국비가 확보된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460억 원)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490억 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836억 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충북 오송, 대구와 함께 첨단의료 3대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전남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올해 국비 82억 원이 확보된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1,994억 원)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해 조선산업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우수한 관광·문화자원에 인프라를 더해 세계인이 찾고 즐기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황금들녘과 섬, 바다, 갯벌 등을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실

현하고, 주민 소득을 높이는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 개설되는 여수 경도진 입도로(1,156억 원)를 기반으로, 호텔·콘도, 쇼핑몰 등을 갖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경도해양관광단지를 2024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진도 쏘비치는 작년 7월 개장 이후 24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 리조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발을 댄 여수 화양 쉼터파크와 신안 자은국제문화관광타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그리고 보성 울포 해양레저관광지까지 완성되면 남해안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 2월이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조화·둔병·남도·적금대교 등 4개의 연륙·연도교가 개통됩니다. 섬·해양의 접근성과 관광 편의가 대폭 개선되어 지난해 개통된 천사대교, 칠산대교와 함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7억 원도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국가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안뿐만 아니라 영산강·섬진강 중심의 내륙권까지 포괄하고 남도의병 역사공원, 이순신 호국벨트와 연계해 광역관광 개발계획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동권에 유치해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거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예향전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9월~10월)와 도립미술관 개관(10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2년 전국체전을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는 등 체육 기반시설 확충과 경기력 향상 등에 힘을 쏟겠습니다.

넷째, 미래 지역성장의 발판이 될 핵심 SOC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철도는 지난해 전철화 방식으로 확정되고, 금년 예산 4천억 원도 확보되어 2023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930년대 개설되어 노후철도의 대명사가 된 경전선 또한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남해안철도와 연계하면, 2023년부터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에 주파하는 남해안 광역 고속전철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금년 예산 1,800억 원이 확보되어 당초보다 2년 단축한 2023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핵심 기반인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암태~장산 구간과 고흥~완도 구간 국도 승격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신안 추포~비금 구간은 제5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수~익산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간 2단계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각각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 원이 확보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보잉 747 등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토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흑산공항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관련 부처 협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광양항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 10대 항만으로 키우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세풍산단 일부 부지매입비 21억 원을 시작으로 세풍·황금·울촌2산단을 항만배후단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광양항과 울촌산단을 잇는 연결도로(1,900억 원) 개설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1,600억 원)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로 준설, 항만시설 자동화·현대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해 오는 2030년에는 광양항이 총 물동량 5억톤을 달성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구례)’ 조성에 180억 원을 투입해 6차산업의 선도모델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350억 원)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도가 적격지로 선정된 국립난대수목원은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1,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과 수출 중심의 유통 시스템을 갖춘 국내 제일의 혁신 농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를 앞당길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무인·자동화 농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깨끗한 전남을 만드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5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과 어장의 청정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다목적 해양환경 정화선 2척을 신속히 건조해 해양 정화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70곳이 선정된 어촌뉴딜300도 2023년까지 120개소 선정을 목표로 지속 추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와 어항 특화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농어민의 생활 안정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 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을 물론,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간접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기본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도 더욱 늘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이 전남에 유치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공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누리과정 민간보육시설의 학부모 부담분(월 평균 8만원)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해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스템도 강화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와 민박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정책에 담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여 지역인재가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도민과 전남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직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겠습니다. 광주와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등 다른 광역 지자체와도 손을 맞잡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부산·경남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해 남해안 광역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북 등 타 시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국고예산 7조 원, 전남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략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 맞춤형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3대 핵심 과제 유치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을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과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지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유치하겠습니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고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하겠습니다. 한전공대와 광주·전남 소재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높이면서 벤처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

장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전남은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본격 추진하여 전남의 ‘제2의 도약’을 이루고, 미래 백년의 대한민국, 천년의 전남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세워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성을 다해 전남의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향해 저와 모든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새롭게 다시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5. 경상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이 된 쥐는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경자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 경북에 일자리와 아이들을 많이 늘려서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경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고 때로는 저돌적인 자세로 안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고, 밖으로는 과거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매달 1만km 이상의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하는 주변의 걱정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체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경북의 주력산업들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들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 유치로 안정된 일자리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발전의 역사적 전기가 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이전방식을 확정지었고, 초미의 관심사이자 지역의 현안이었던 포항지진특별법과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주민 구제와 신라왕경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공직자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경제, 문화, 교통 등의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을 알리는 경고음이 여기저기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지방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북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북은 변화를 멈춰선 안 됩니다. 과거의 자긍심은 살리되, 구태는 벗어버리고 열정은 갖되, 자만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경북 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신년화두인 ‘녹풍다경(綠風多慶)’의 의미처럼 도민 여러분과 푸른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과 나라에 경사스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은 그간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의 가치를 도정에 녹여내서 도민들께서 진정 살기 좋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을 대표할 핵심 시책으로는,

- 01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전기가 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 02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줄 ‘소재부품 혁신 프로젝트’
- 03소상공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소상공·자영업 행복경제 프로젝트’
- 04미래형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10대 과학산업 예타 프로젝트’
- 05보육과 출산의 걱정을 대폭 덜어주는 ‘경북형 아이행복 프로젝트’
- 06경북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할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 07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종갓돈인 ‘농식품 모태펀드’
- 08대한민국 원자력 연구의 중심이 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 09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세계적 위상을 정립하는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 10대한민국 체육사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101회 전국체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시책들은 그 성과를 극대화해서 경북 100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시책들을 포함한 금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주력하고 기업가와 자영업인들이 신바람 나는 경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 단단히 다진 투자유치 기반을 토대로 4차산업, 관광·레저 분야의 기업들을 집중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우수한 기업들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량 개발과 창업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학·잡·아(學Job兒)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으로 이어지는 소주기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북 정착률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과 각종 인프라를 결합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문화·관광, 그리고 활동거점을 지원하는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도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도시와 같은 수준의 기초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중심이 될, 4050세대들의 일자리 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복일자리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경제의 중심은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한편, 경영 안정과 설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중소기업 행복금융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기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명품점포 육성과 시장 마케팅은 물론, 사양 업종은 경쟁력 높은 업종으로 전환을 도와주는 ‘소상공·자영업 행복경제 프로젝트’도 가동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이 먼저 심각한 저출생의 문제를 극복해서 국가적 문제인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약 1만 1천여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고령화로 자연감소가 더욱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지방소멸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결혼-임신·출산-보육에 이르는 소주기 정책 지원과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지방소멸 극복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이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 보전’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설치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긴급한 임산부가 산부인과에 적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새생명탄생 119 구급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비용’과 ‘미혼부모 보금자리’도 지원해서 보육을 위한 신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인구교육 선도학교’와 ‘슈퍼맨 아빠교실’ 등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올해 6월에 개관하는 ‘경북 여성가족플라자’를 통해 출산, 보육에 대한 올바른 역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는 ‘반려동물산업특구’와 ‘청년문화 상상마당’ 조성으로 청년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을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동시에 국가 산업 경쟁력도 제고시키는 대규모 R&D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색기술, 뷰티·화장품, 이차전지, 항공·방위, 소재부품을 ‘신경북 5대 전략산업’으로 삼아서 산업별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규모로 구성된 ‘10대 과학산업 예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전략 산업들을 하나 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10개 사업을 합치면 총사업비만 2조 5천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은 조만간 예타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개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 중심의 원전 산업을 해체·연구·안전 중심의 원전산업으로 전환시켜서 더 풍족한 원전산업 먹거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과 ‘중수로 해체 기술원’에 더해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건설로 약 8,300억 원 규모의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청사진을 빠르게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었던 경북 관광을 새롭게 단장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경북은 전국 지정문화재의 15%를 보유하고 전국 세계문화유산 13종 중에서 5종을 보유하며 천혜의 자연인 백두대간과 낙동강, 동해에 둘러싸여 경북 전체가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3%만이 경북을 찾는 등 관광의 위상은 자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로우리의 문화·역사적 궁지를 되살릴 기회입니다. 대구·경북 연계 관광코스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고, 식당·화장실 시설개선 등 여행자 친화환경 조성으로 경북 관광 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명성을 수백 년 이어가기 위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주와 울진 등지에 신규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파크와 야영장 등을 조성해서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통과시킨 ‘신라왕경특별법’을 기반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도 속도를 내서 천년고도 신라의 모습을 빠르게 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 80%인 ‘3대 문화권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서 2021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낙동강 문명길을 재조명하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강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3대 문화권 사업을 이를 후속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고사(枯死)하고 있는 농산어촌을 늘어나는 소득으로 신명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은 ‘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업체와 제휴해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때 따른 불확실성과 가뭄·홍수 등 반복되는 재난재해로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형으로 진화하는 농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확대하고 ‘농업계 특성화고’를 설립해서 우수한 영농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11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해서 영농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 소득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 ‘6차산업’, ‘치유농장’ 등 타 분야와 융복합화를 도모하고 ‘수출 전문단지’와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서 농식품 수출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유치에 힘쓰고 각종 임산물 클러스터와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바라만보는 산’을 ‘돈이되는 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어업인들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 지구를 늘리는 데 힘써서 낙후된 어촌을 살만한 어촌으로 바꾸고, ‘스마트 피서리 테크노파크’와 ‘정화은반선 건조’ 사업으로 고소득을 보장하는 청정 해역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대구경북이 새역사로 나아가는 하늘길 원년을 열고 촘촘한 도로·철도망으로 어디서나 가까운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경제, 산업, 관광 등 지역 전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만 10조원 규모로 연계 교통망과 산업, 물류, 정주환경 조성까지 포함하면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우리 지역에 이뤄지게 되는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과연 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열정적으로 뛰어다닌 결과, 정부의 확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주민 투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절차를 추진해서 이전지를 확정하고 대구와 공항을 잇는 KTX, 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발 빠르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을 통한 바닷길 개척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를 금년 내 준공하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서 환동해권 국가와 물류·관광을 연결하는 해양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을 촘촘히 잇는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습니다. 올해 내로 동대구~영천간 대구선 복선전철화를 비롯한 5개 도로·철도망을 준공해서 도민 여러분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고속도로 3지구, 국도 25지구, 철도 10지구, 국지도 10지구 등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가 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경북 동해안 대표 고속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제반 환경을 면밀히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희망키움 사업’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으로 삶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로 위험상황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어르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만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직장이 자택에서 먼 일부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훈련연계 주택 지원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미세먼지 오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주요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응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서두르고 ‘지진해일 정보시스템과 대피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지원책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초폭염 지역에는 ‘쿨링 인프라 벨트’를 조성하고 ‘스마트 그늘막’ 등을 보급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 역사와 자긍심을 키워나가면서 대구·경북의 통합을 향한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비롯해서 “새마을운동 50주년”, “6.25 70주년”, 14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101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서 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국내 새마을운동은 50주년을 맞이하지만도 자체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15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국가들과 그 성과를 돌아보고 지자체 수준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더욱 멀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6.25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경북이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것을 전국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세미나, 드라마 등으로 참전용사를 재조명하면서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크게 올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도 2배로 대폭 확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사의 새로운 100년을 열 ‘제101회 전국체전’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이슈는 올해 최대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대구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면서 대구경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그래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가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마치 ‘하나처럼 운영’돼야 그 시너지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면적으로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스라엘, 쿠웨이트와 비슷해집니다. 이제 대구경북의 담대한 미래를 그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부터 협력을 강화해서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점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직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연구용역을 통해 많은 것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그 날이 오기를 꿈꿔 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은 경북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길을 연 원년”,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점”, “대구·경북 통합의 시작점” 등과 같이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새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낮은 곳에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도지사도 초심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가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새로운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를 버리고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불공정 제도와 관습들은 신속히 개선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해야 산다’를 외치며, 도청 앞마당의 ‘공룡 화석’처럼, 변하지 않으면 공룡과 같이 멸종될 수 있다는 교훈을 한없이 되새기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으로 연결되어 도민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도록 23개 시군과 모든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16. 경상남도지사 신년사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좋은 일이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해는 스마트 산단, 서부경남 KTX, 진해 스마트 대형항만 3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경남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쌓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새해는 그 토대 위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도록 경남을 ‘교육특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경남·부산·울산이 힘을 모아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올해 우리 경남이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과들은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 주신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도민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년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제주경제도 어려워져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도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1차 산업은 품목 다변화와 맛 좋은 상품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다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꾀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동산은 공공분야 신속 집행과 제주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으로 건설 투자를 늘리고, 도민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도민들은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한 일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 지역경제에 드리워진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빛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더 탄탄하고, 더 넓은 길을 만들어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으로 도민의 삶이 편안한 희망찬 경자년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록 II.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러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의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니, 사람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제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여금(ET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계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들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을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는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계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재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 등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역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나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내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므타(MKTA)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살 수 있을 때 국민 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